「경영사학」 제31집 제1호(통권 77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6. 3. 31. pp. 5~26

논문접수일 : 2015년 10월 12일
최종수정일 : 2016년 03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3월 14일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희현* · 김예원** · 신건철***

요 약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의 산업 경쟁력은 경제주체 간 긴밀한 협업이다.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주목한 각 국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산업에 주목한 우리나라 정부는 농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농식품클러스터는 단순 가공사업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롭게 조성된 단지에 연관 업체 입주 장려라는 단순 집적 이상을 벗어나 지역 산업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주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장의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면서도 클러스터 경제주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는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 사례에 주목하였다. 본 사례와 관련된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와인생산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와 소비자 건강이라는 산업 전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투자유치와 연구자원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일어나 연구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둘째,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첨단 디지털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 추적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고령화되는 노동풀을 대비하여 지역 산업에 최적화된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정부기관들이 전폭적인 교육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자연환경,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유한 지역성은 표준화된 품질의 와인들 사이에서 희소성을 나타내고, 제품 이해가 어려운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민관이 최적화된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함으로써 지역공동의 과제였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하게 되었다.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와 미국, 캐나다, 칠레와 같은 신세계 와인클러스터의 공통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수료, hhpark.mkt@khu.ac.kr, 제1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과정, ys1202@naver.com, 제2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gcshin@khu.ac.kr, 교신저자.

은 자생적으로 집적된 농업 단지를 발굴하여 정부의 전략적 제도마련을 통해 육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없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상이한 것으로, 농식품클러스터 조성정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술진보로 인해 제품 품질이 표준화된 환경에서 농식품의 핵심 역량은 지역 정체성 강화이다. 이는 제품 소비를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소비자의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요인으로써, 타 지역 농식품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르고뉴 와인산업, 와이너리, 산업클러스터, 기술혁신

I. 서 론

과거 특정 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여부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요인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단순한 집적경제가 아닌 분산된 구성원들의 협력체계가 생산성 제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정욱 외 2012). 이와 같은 산업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1990년대 초부터 지역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가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식품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농식품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착수한 바 있다(김경필 외 2014).

그러나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된 지역기반 농식품클러스터는 단순 가공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단순노동형태 일자리 창출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병오와 김태연 2009). 또한 1990년대 후반 경쟁적으로 조성된 클러스터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주도의 연관 업체 입주 장려는 육성정책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김정욱 외 2012). 게다가 1960년대 이후 발생한 급격한 도시화는 농촌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계획 시행으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방안 연구 활동이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연구자원 유치와 효율적인 재분배가 시급하다(김태명 2003; 박현희 2011).

농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식품과 지역농업 간 연계 없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산업연구원 2008), 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식품산업 특성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타 산업에 최적화된 클러스터 모델을 식품이라는 특수산업군에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산업 기반의 산업클러스터와는 상이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농식품클러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 와인클러스터에 주목하였다.

Porter와 Bond(1999)는 학민관의 긴밀한 전략적 네트워크 활용을 기반으로 40년 동안 R&D주도의 기술혁신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 글로벌 와인 선도 생산지로 변모한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 사례를 보고하였다. Visser(2004)는 199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칠레 와인클러스터는 구성원 공동의 전략적 목표 추구와 정책 실행에 따른 결과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민관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긴밀한 협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신동호(2008)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나파와 소노마 와인클러스터 성장과정과 혁신주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구성원들의 긴밀한 협력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고취시켜 산업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였으며, Shin 외(2008)에 따르면 후발 생산지역이자 열악한 자연환경을 지닌 캐나다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클러스터는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된 아이스와인 출시를 통해 신시장 개척에 성공을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클러스터에 대해 각 기관에서 수집한 2차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배경과 혁신주체 간 협력사례를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 이론

클러스터(cluster)란 원자재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하는 생산업체, 판매업체, 수요업체, 연구기관, 대학, 고객 등이 각 기업과 기관에 의해 축적된 기술력, 지식, 경험,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군집으로, 특정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지리적 결집체다(Porter 1998a; 1998b). Marshall(1920/1890)은 제한된 지리적 범위 내 집적한 기업에 의해 형성된 산업지구가 역동적인 혁신과 모방을 촉진시켜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클러스터와 혁신성과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배응환 2015).

클러스터이론의 핵심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관계 및 내부 경쟁을 통한 산업 전체의 성장도모이다(Poter 1998a). 클러스터는 규모의 경제 실현 용이성과 함께 지리적 인접성의 이점에 따라 시장반응을 신속하게 인지한 대처가 가능하다.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플랫폼은 연구개발 비용축소와 투자증가를 동시에 가져온다. 또한 클러스터 내부에서 증폭되는 동료압력(peer pressure)은 월등한 핵심인재 확보경쟁에 기인하는 우위선점 동기를 촉발시켜 혁신선도주체와 혁신추격주체의 지속적인 순환구조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이 강화된다(Porter 1998b; OECD 1999a; 1999b;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이성근 외 2014).

대표적인 클러스터는 첨단기술 연구단지의 실리콘 밸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할

리우드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 각 클러스터는 산업 특성이 반영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학습, 혁신 네트워크, 혁신 시너지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진화하였다(Porter 1998a; 황주성 2000a; 2000b;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클러스터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 기술, 정책에 따른 가변적 선택환경의 국가혁신체제 축소판이며, 규모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지식정보 생산 및 확산비용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생산성 제고를 견인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혁신은 지식을 산출하여 확산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적 환경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체계로서의 이해가 필요하다(Camagni 1991; Hudson 1999).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혁신정책을 실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동원하였지만, 여러 기구의 중복된 정책과 비효율적 자원 배치에 의해 혁신주체들의 역할과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신동호 2008).

Cooke 외(1997)는 지역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자금 조달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았고, 집적된 단지에서 구성원 간 교류가 지속되기 위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교류는 산업 내 세밀하게 조율해야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을 발생시켜 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Cooke 외 1997). 같은 맥락으로 이상빈과 염명배(2012)는 클러스터 내 구성원들의 공통된 신념 및 가치관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가 긴밀한 협력의 기반이 되어 제한된 지역 내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Saxenian(1994)이 실리콘 밸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한 긴밀한 사회적 연계가 구성원 간 신뢰를 강화시켜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는 제한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혁신주체 간 집단학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축적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은 산업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rtin 2009; 이상빈과 염명배 2012).

지역혁신체계는 지방정부의 재정 후원, 제도적 학습과 생산적 문화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 질서를 견인하여 특정지역 내에서 협력 촉진을 위해 혁신주체들이 상호작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 클러스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Cooke 외 1997; 배응환 20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혁신체계는 지리적으로 집적된 클러스터가 집단학습과 혁신능력을 제고시켜 구성원 간 협력에 따른 혁신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김정호 외 2004; 문휘창과 정진섭 2008).

2. 프랑스 와인산업: 클러스터 연구

지난 40년간 혁신연구의 중심은 과학기술 주도의 생산성 증대였으나, 최근 에는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혁신체계의 핵심으로 변모하였다(Agwu 외 2008). Schumpeter(1961/1934)는 기술혁신이란 기업가의 선도적 역할에 따른 신생산 기술 도입, 신시장 개척, 기존산업 독점적 지위 타파와 같이 경제를 새롭게 창출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와인을 비롯한 농식품산업은 기후적·지질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의 자족형 클러스터(self-sufficient clusters)로 생산과 최종 소비과정을 총괄하는 네트워크와 공급망이 통합되어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Becattini 1990; 이공래 2002; 소순열과 이소영 2012; 남기포 2015). 따라서 와인클러스터는 정부의 엄격한 제도적 통제와 고도화된 소비자의 요구조건과 같은 다수의 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구성 주체 간 긴밀한 협력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남기포 2015).

일반적으로 농업과 같은 저기술 클러스터는 특정기술이 지배하지 않는 지식 집약적 형태로 존재하여 첨단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 기술지식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한 조직지식, 시장지식과 같은 비기술지식을 통해 미비한 제품성능이나 긴밀한 협력구조에 기반을 둔 지식교류를 독려해야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이와 같은 교류 활성화는 단순 집적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Poter(1998b)의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 구조〈그림 1〉에 따르면, 포도 재배농가와 양조업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포도나무 재배에 필수적인 묘목, 비료, 살충제, 제초제 생산업체 및 수확에 필요한 설비업체가 포도나무 재배농가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포도재배 및 와인양조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정부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기술개발은 대학산하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이듯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는 독자적 구조가 아닌 식음료·관광·농업의 타 산업 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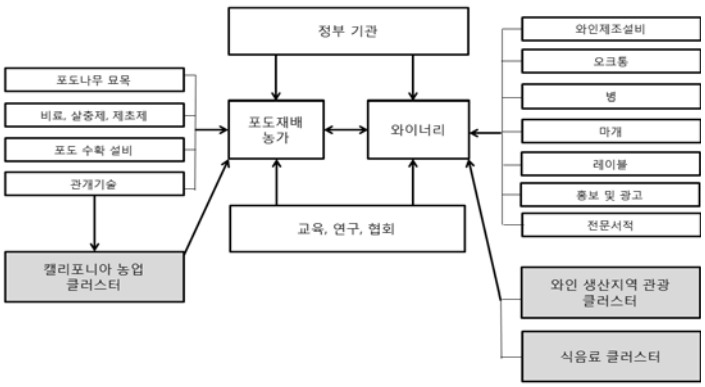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신세계 와인 클러스터는 지난 40년 동안 R&D주도에 따른 품질향상과 국제화 시대 도래와 맞물려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이들은 첨단 기술과 세계 와인시장 변화에 주목한 첨예한 마케팅 전략의 앞세운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의 대표적 예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와인생산지인 유럽은 재빠르게 추격하는 신세계 와인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위협을 느껴 산업 구조개혁 단행하였다.

유럽연합은 유럽각료회의에서 도출된 지속가능한 유럽 와인산업 발전을 위해 2009-2015년 동안 1조 유로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와인의 과잉생산을 저지

시킴과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었다(Migone과 Howlett 2010).

〈그림 1〉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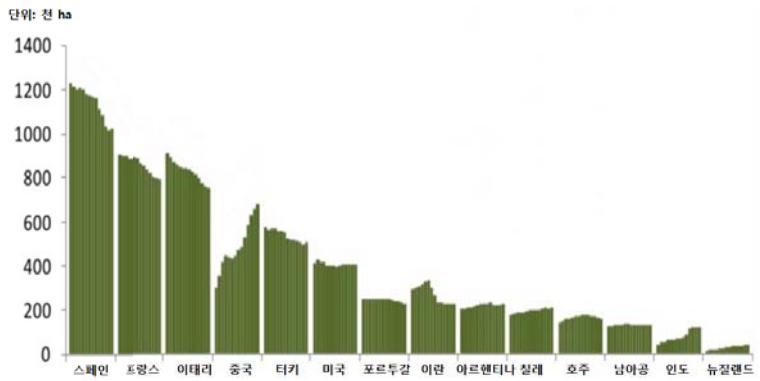
*출처: Poter 1998b, 재인용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2000년 세계 포도밭 면적의 62.5%를 차지하던 유럽은 2013년 55%로 하락하게 되었다(Aurand 2014). 아래 〈그림2〉는 세계 포도 경작지 규모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 스페인의 축소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포도 경작지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신세계 와인산지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 2000-2013년 세계 포도밭 면적 변화

*출처: Aurand 2014, 재인용



〈표 1〉 와인 생산량 (단위: 천 헥토리터)

*출처: OIV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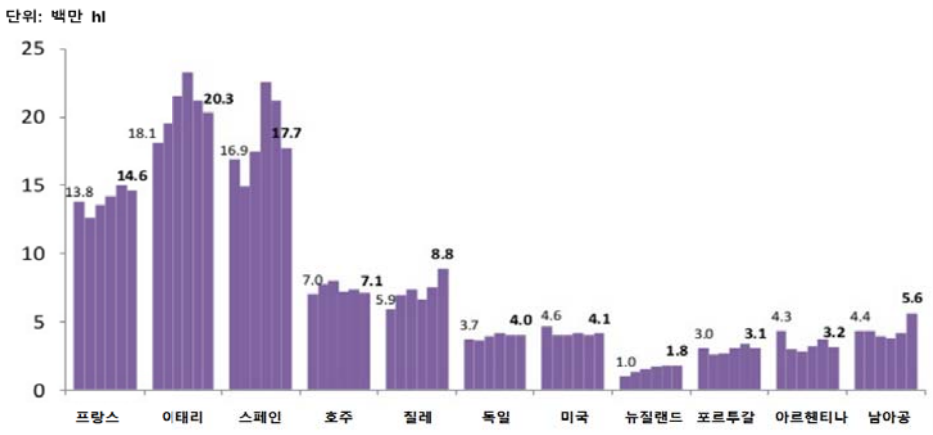
연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국가별 생산비율
이태리	48,525	42,772	45,616	54,029	18%
프랑스	44,381	50,757	41,548	42,134	14%
스페인	35,353	33,397	31,123	45,308	16%
미국	20,887	19,140	21,650	23,590	8%
아르헨티나	16,250	15,473	11,778	14,984	5%
칠레	8,844	10,464	12,554	12,820	4%
호주	11,420	11,180	12,259	12,310	4%
남아공	9,327	9,725	10,569	10,982	4%
중국	13,000	13,200	13,511	11,780	4%
독일	6,906	9,132	9,012	8,409	3%
기타	49,295	52,563	48,591	55,872	19%
합계	264,188	267,803	258,211	292,218	-

프랑스는 와인 생산 면적감소로 인해 세계 3위 생산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표 1〉.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태리와 스페인보다 적은 물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그림 3〉, 매출은 이태리와 스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4〉. 이는 프랑스 와인이 확고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프랑스 내 와인 및 주류 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2014년 프랑스 와인·주류산업 수출실적은 95억 유로, 약 12조 원으로[1] 에어버스 항공기 140대 매출과 동일하며, 본 산업은 항공산업(235억 유로), 화학·향수·화장품산업(108억 유로)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나타났다(Navarre 2015).

1) 프랑스 와인산업 단독 실적은 77억 유로 즉 한화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Navarr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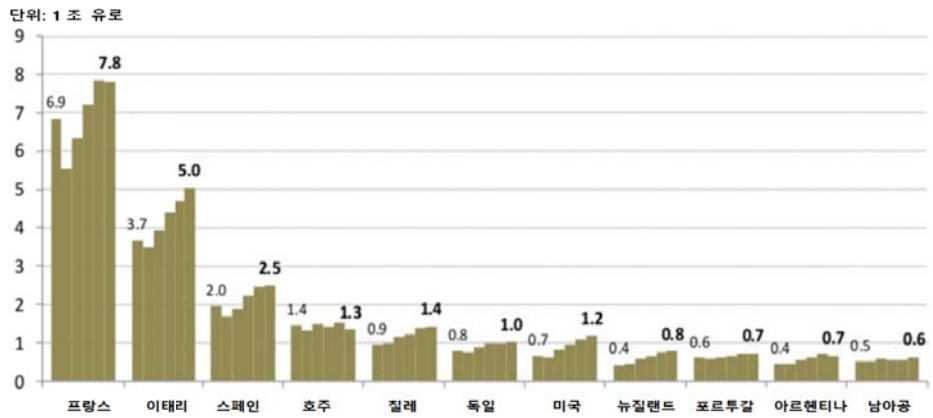
〈그림 3〉 2008-2013년 세계 와인 수출량

*출처: Aurand 2014, 재인용



〈그림 4〉 2008-2013년 세계 와인 수출액

*출처: Aurand 2014, 재인용



3. 프랑스 와인클러스터의 역사

기원전 600년 마르세유지역에서 최초로 포도나무가 로마인에 의해 도입된 후 론 벨리를 비롯한 프랑스 대다수 지역에 포도 재배지역이 확장되었다(FranceAgriMer 2015). '예수의 피'라는 상징성 때문에 천주교 교리에 따라 미사주로 음용되었으며, 각 수도원은 미사주 조달을 위해 수도승들이 양질의 와인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

전술된 종교적 배경이 초창기 와인산업 번영에 기여했다면, 19세기 초에는 기초과학 기반의 기술혁신 시대가 도래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챕탈(Chaptal)과 같은 화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자연발효의 한계점이 극복되어 이전에 비해 높은 알코올 도수의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고, 숙성과정에서 미생물 번식으로 인한 와인부패 예방연구가 루이 루이파스퇴르(Louis Pasteur)를 필두로 실시되어 와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Peynaud 1988). 또 물리학자 및 농업학자에 의해 연구된 포도나무의 효율적인 재배방법과 농법들이 농가에 전파되어 와인산업의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유입된 포도나무뿌리 진딧물인 필록세라(phylloxera)는 프랑스 포도재배 면적의 50%를 황폐화시켜 와인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연구 끝에 필록세라에 저항력이 있는 미국산 포도나무의 종뿌리(rootstock)와 양질의 포도열매를 생산하는 유럽 포도나무 가지(scion)를 접붙이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와인산업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반감된 와인 생산량이 수요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게 되자 모조 와인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장교란이 야기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와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1889년 의회에 의결시켰으며, 프랑스를 필두로 이와 상응하는 법을 독일과 이태리에서 각각 1892년과 1904년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와인의 품질 및 생산기술 통제 방안을 상세히 다룬 최초의 법률제도가 1905년 입법되었고, 1919년 세계 1차 대전에 의해 또 다시 황폐화된 포도밭 개량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마침내 1935년 원산지명칭법(AOC)이 국립원산명칭기관(INAO)에 의해 제정되었다(Faivre와 Montmaur 2002; Sylvain과 Servant 2010).

III.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 사례연구

1.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 역사

부르고뉴 지역을 지배하던 골(Gaule)족을 침략한 로마인에 의해 기원전 52년에 포도나무가 유입되었고, 기원후 1세기 후반 포도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BIVB 2015). 4세기에는 부르고뉴 와인의 품질을 인정받아 로마제국 콘스탄틴 황제에 진상되었으며, 909년과 1098년에 각각 클루니(Cluny)와 시토(Cîteaux)사원 설립을 계기로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를 소속 수도승이 생산하면서 지역 와인산업 번영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수 세기에 걸쳐 경험을 축적한 수도승들은 지역 내 미세기후

(microclimate)와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경작지를 구분하여 명명하기 시작하였고, 1935년 원산지 명칭제도는 이들이 분할한 구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BIVB 2015). 1693년 루이 14세를 치료하기위해 주치의 파곤(Fagon)이 부르고뉴 와인을 약으로 처방한 것을 계기로 후대 왕인 루이 15세, 루이 16세에 진상되어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명성이 강화되었다(BIVB 2015). 1789년 프랑스 혁명 후 카톨릭 사원과 귀족의 사유지였던 포도밭이 전부 국유화된 후 국가는 자본력을 갖춘 민간에 매각하였고, 모든 아들에게 균등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나폴레옹 법전의 토지분할권에 따라 부르고뉴 포도밭은 지극히 세분화된 소유구조를 나타내고 있다(BIVB 2015).

현재 부르고뉴 와인생산지는 샤블리(Chablis), 코트드뉘(Côte de Nuits), 코트드본(Côte de Beaune), 코트샬로내즈(Côte Châlonnaise), 마코내(Mâconnais) 총 5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행정구역과 별도의 개념인 원산지 명칭에 따라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100개의 원산지 명칭은 경작지면적, 승인된 포도품종, 포도나무 가지치기 유형, 포도나무 재배법, 생산량, 최소 알코올 도수와 같은 통제기준을 국립원산지명칭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승인을 얻게 된다(Faivre와 Montmaur 2002).

29,337 ha에서 생산된 부르고뉴 와인 180만 병의 50%는 180개국으로 수출되고, 수출규모는 14억 6000만 유로 즉, 1조 8천억 원으로 전 세계 와인생산 지역 중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CI Côte d'Or 2015). 부르고뉴 전체 와인 생산량의 62%는 화이트와인, 30%는 레드와 로제와인, 8%는 스파클링 와인이다(BIVB 2015). 또한 품질평가에 따라 서열화된 등급은 그랑크뤼 등급, 프리미에크뤼 등급, 마을단위 등급, 지역단위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와인산업 종사자는 45,540명으로 부르고뉴 전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7% 수준이며, 와인 생산업체는 중소업체 3,949개소와 대규모업체 300개소, 협동조합 19개소에 달한다(CCI Côte d'Or 2015).

2.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의 혁신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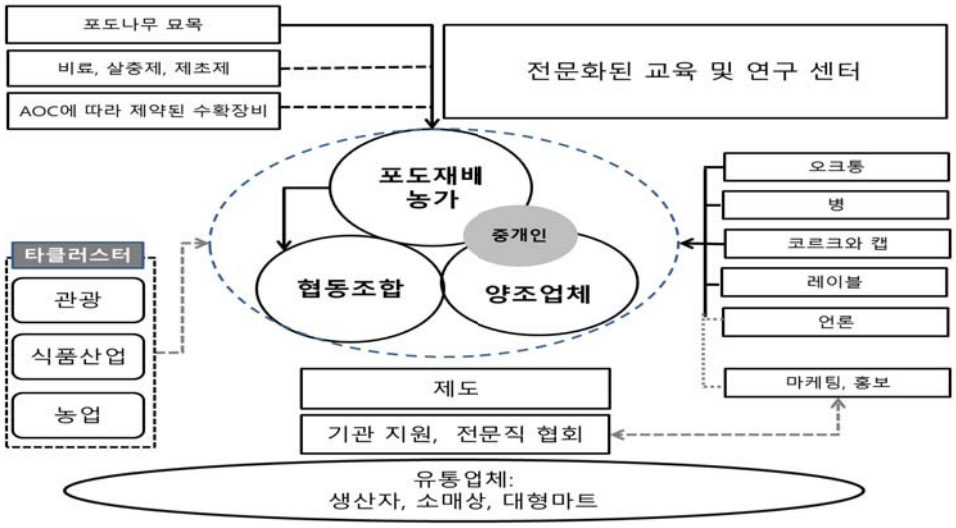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ter(1998b)의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 구조와 미세한 차이점을 나타낸다(Ditter 2005). 부르고뉴는 세분화된 포도밭을 세기에 걸쳐 계승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다. 자립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은 1923년 지역 최초로 와인협동조합을 출범시켜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일부 기업의 독식체제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Migone과 Howlett 2010). 또한 재배업체와 양조업체 간 원자재 매매를 매개하는 중개인은 특정 업체가 한 사업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포도밭이 있으나 부족한

자본 때문에 상품화가 어려운 재배업체는 중개인을 통해 재배 기술이 미비한 양조업체에 원자재를 매도하게 된다. 이는 양자 모두 제한된 자본으로 각 업체의 핵심역량에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지적 협력 네트워크를 과거의 기술혁신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오늘날의 기술혁신은 이들을 비롯한 산업 전체 구성요소의 협력적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따라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기술혁신의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는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를 재구성한 자료로, 클러스터 구성원뿐 아니라 관광·농업·식품클러스터와의 긴밀한 협력강화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Ditter 2005).

〈그림 5〉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 구조

*출처: Ditter 2005, 재인용



와인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집약적 정책으로 단기간에 전통 와인생산 국가를 추월(catch-up)한 미국, 호주와 같은 신세계 와인 클러스터는 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끊임없는 기술변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부르고뉴는 세기를 거듭하며 축적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세계 와인이 결코 표방할 수 없는 전통성을 기술혁신의 핵심으로 보면서 신세계 와인 산업과는 다소 상이한 정책 방향을 추구한다. 부르고뉴는 전통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산업 전체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플랫폼 구성을 표방하는 유럽연합의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sation)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전문화

는 지역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9년 유럽연합에 제기된 개념이며, 지역 특수성을 토대로 수립된 전략이 지역 전문성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다(Foray 외 2009; 이정협 2011).

스마트 전문화를 바탕으로 부르고뉴는 지식산출기관, 지식전이기관, 기업 활동, 지속적인 인재양성 등에 필요한 혁신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주체 간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와인클러스터 혁신과제의 핵심은 소비자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와인 생산이다. 19세기 과학자들이 와인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에는 와인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소비자 건강을 고려하는 산업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부르고뉴 대학교 산하 연구소인 줄 귀요 와인대학(Institut Jules Guyot)을 필두로 형성된 부르고뉴 연구 플랫폼은 지방의회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공공과 민간 자본 투자를 활발히 받고 있다(Bourgogne Conseil Régional 2015). 연구 분야별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라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어 친환경 농법 개발과 인체에 무해한 양조 첨가물 개발 등의 다수의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와인생산에서부터 판매점에 이르는 전 과정 추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보통신기반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정책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Bourgogne Conseil Régional 2015). 부르고뉴 와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하여 품질 향상은 물론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기반 인프라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심사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본다. 최종 제품이 전통적 이미지를 고수하면서도,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지역 내 첨단 디지털 산업과의 긴밀한 교류를 지향하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셋째, 부르고뉴는 총 인구 대비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노동풀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 국적자의 경우 부르고뉴 상공회의소 또는 지방의회의 학비 지원 교육 혜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전문 인력은 지속적으로 클러스터에 유입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Bourgogne Conseil Régional 2015).

넷째, 부르고뉴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품종와인에서 비롯된다. 피노누아(pinot noir)로 만든 레드와인은 다양한 품종을 블렌딩하여 일정한 맛을 만드는 보르

도 및 신세계 와인과 확연히 구분된다. 블렌딩 와인은 작황 결과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매년 다른 비율로 섞어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표준화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단일품종으로 만들어진 경우 기후, 지리, 지질, 사람의 기술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빈티지에 따른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일정한 품질의 와인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독특한 지방색이 표출된다. 와인 전문 언론사는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출판 및 미디어 제작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소구하고 있다. 또한 부르고뉴 와인협회(BIVB)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하여 지역 와인의 우월성을 강조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켜 소비 증가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보르도의 경우 포도밭이 아닌 도시의 일부가 UNESCO에 2007년 등재된 바 있으나, 2006년부터 시작된 샴페인지역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2015년 7월 4일 포도밭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5개 하위지역 중 코트드뉘와 코트드본의 포도밭 환경, 소규모 농가로 구성된 마을과 앞서 언급한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클리마(climats)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운 샴페인 지역보다 유일하고 가치 있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UNESCO 2015).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 위원장을 자처한 오베르 드 빌랜은 오랜 와이너리 경영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명성으로 지역 기업과 지방 정부의 이견을 최소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줄귀요 와인 대학을 선두로 다수의 학술기관이 UNESCO등재 필요성을 피력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전 세계 지식인에게 부르고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였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쾌거는 민관학의 긴밀한 협력체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르고뉴 와인은 지역 농산물인 포도로 생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가 전제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와인 생산량의 50%를 고정적으로 수출하여 국내와 해외시장 의존도를 균등하게 유지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내륙에 위치한 부르고뉴는 두드러지는 현대 산업의 기반 없이 와인이라는 제품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물량에 비해 많은 수출 수입을 달성할 수 있었던 부르고뉴 지역만의 핵심역량은 타 지역 와인이 절대 추격할 수 없는 테루아(terroir) 즉, 문화와 지역의 유일성이다. 극도로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표방하는 원산지명칭법은 와인생산 환경을 제한하여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도록 만들지만, 이러한 제약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맛을 표현하는 와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독특성을 소구하여 궁극적으로 부르고뉴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Ditter 2005).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집적기반 및 숙련된 노동풀과 무관한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수행한 바 있으나, 단순 노동과 같은 고용창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식품클러스터의 핵심 역량을 발굴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해외 우수 사례인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 혁신 환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는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지 않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아우르며 부르고뉴만의 독특한 지방색을 창출해낸다. 이러한 지역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환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기관과 지역산업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와인은 생산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식품안전성 확보가 필수이다. 따라서 소비자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 환경과 첨가물 성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제도 조성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또한 부르고뉴는 정부 규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뉴 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 플랫폼에서 와인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구성원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의회가 공공 및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의 주체가 되었고, 연구 분야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셋째,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품질추적시스템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과 와인 산업의 협력은 물론, 정부의 제도적 환경 조성을 통한 활발한 지식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클러스터에 유입된 숙련된 노동풀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대학교와 전문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에 더해 정부의 학비 지원 혜택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클러스터에 유입되는 노동풀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다섯째, 부르고뉴 와인의 독특한 지역성과 제도가 대중에게 거리감으로 느껴 질 수 있지만,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는 부르고뉴 와인전문 월간지 또는 서적은 글로벌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키려는 민간분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포도밭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민간 기업인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칠레 와인클러스터의 경우 기술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유럽 와인의 명성을 단기간에 추월한 농식품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이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는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와 상이한 방향을 지향한다. 하지만 신세계 와인의 역사가 약 기원후 1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르고뉴와 동일한 자족형 클러스터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해외의 경우 농식품클러스터가 자연환경에 따라 조성된 농업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한 원자재를 가공, 유통시키던 기존의 집적 단지가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의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산업연구원 2008). 이는 지역 농업과 관련이 미비한 기업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조성하려는 우리나라 정책과 구분된다. 따라서 지역 농업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하는 농식품클러스터 조성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사되는 바이다.

둘째, 기존 지역상품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사실, 식품 산업을 비롯한 다수의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제품품질의 평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는 소비 자체 보다 제품 소비를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가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농식품 차별화 우위의 핵심은 지역에 기반을 둔 희소성이며, 과소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농식품을 발굴하여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식품산업은 고유의 전통문화 강조를 통한 차별화전략과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대체상품으로부터 압력을 장기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일치한다(박기안 외 2013).

본 연구는 점진적 기술혁신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 사례를 최초로 분석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 사례고찰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혁신주체 간 활발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심화된 혁신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프랑스 각 지역의 와인클러스터는 기존의 지역 환경을 바탕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동종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경쟁이 미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부르고

뉴 지역에 한정된 본 연구는 프랑스 와인클러스터 육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점 제한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책연구), 2001, 「지역혁신을 위한 지식클러스터 실태분석」, 과학기술부.

김경필 · 이동소 · 최지현, 201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체계의 우선순위 분석", 「한국식품유통학회」, 제31권 3호, 85-105.

김정욱 · 김석영 · 양승민, 2012, "산업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42-62.

김정호 · 박문호 · 김태연,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명, 2003,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본 지역경제의 고찰-제천시를 중심으로",「경영사학」, 제30권 제1호, 313-341.

남기포, 2015, "농식품클러스터 네트워크의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무안황토고구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206-223.

문휘창 · 정진섭, 2008, "클러스터 진화의 단계적 고찰과 새로운 글로벌 연계 클러스터의 생성",「경영사학」, 제23집 제1호, 77-104.

박기안 · 신건철 · 김준석, 2013, 「마케팅」, 제1판, 무역경영사.

박현희, 2011,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농업의 변천과 역할", 「경영사학」, 제26집 제4호, 333-354.

배응환, 2015, "혁신의 제도적 접근: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의 지식파급효과, -선행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쟁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115-135.

산업연구원, 2008,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소순열 · 이소영, 201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전북의 역할", 「농업생명과학연구」, 제43권 제2호, 59-68.

신동호, 2008,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생산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 나파 · 소노마 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130-147.

이공래(정책자료), 2002, 「우리나라 지식클러스터 실태와 육성방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원.

이병오 · 김태연, 2009, "식품산업 클러스터 형성 정책과 단계별 발전 전략: 영국 요크셔-험버 식품클러스터의 시사점", 「식품유통연구」, 제 26권 제3호, 1-28.

이상빈 · 염명배, 2012, "중국 온주지역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와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7권 제2호, 205-233.

이성근 · 이춘근 · 나주몽, 2014, 「지역경제학」, 광암문화사.
이정협, 2011, 스마트 전문화의 개념 및 분석틀 정립,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주성, 2000a, "강남 · 서초지역의 산업지구적 성격규명을 위한 실증연구," 「지역연구」, 제16권 제1호, 1-22.
_____, 2000b, "소프트웨어 산업의 입지와 산업지구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 제1호, 121-139.
Agwu, A. E., Dimelu, M. U., and Madukeww, M. C., 2008, Innovation system approach to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deliveray on Nigeria, African Journal of Biotechnology 7(11): 1604-1611.
Aurand, J. M., 2014, State of world vitiviniculture situation, the 37th World Congress of Vine and Wine. OIV.
Becattini, G., 1990, The 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 as a socio-economic notion, in Pyke, Becattini, and Sengenberger, industrial districts and inter-firm cooperation in Ital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137-51.
Bourgogne Conseil Régional, 2015, La Stratégie Régionale d'Innovation-Vers la Spécialisation Intelligente. 1-267.
Camagni, R., 1991,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John Wiley, New York.
CCI Côte d'Or, 2015, Découvrez comment la Côte d'Or fait la différence, Invest in Cote d'Or.
Cooke, P., Uranga, M. G. and Etxebarria, G., 1997,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Research Policy 26, 475-491.
Ditter, J. G., 2005, Reforming the French wine industry: could clusters work? Cahiers du Ceren, 13:39-54.
Faivre, G. and Montmaur, A., 2002, Etude sectorielle: vins, champagnes et spiritueux, Université de Marne-la-Vallée.
Foray, D., David, P. and Hall, B., 2009, Smart Specialisation-the Concept, Knowledge Economy Policy Brief 9.
Hudson, R., 1999, The learning economy, the learning firm and the learning region: a sympathetic critique of the limits to learning,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6(5): 9-72.
Marshall, A., 1920/189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and Co. 8th ed.
Martin, R., 2009, Rethinking regional path dependence: beyond lock-in to evolution,

Papers i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Utrecht University: 1-41.

Migone, A. and Howlett, M., 2010, Comparative networks and clusters in the wine industry, working paper, American Association of Wine Economists, 62: Business.

Navarre, C., 2015, Les exportations françaises de vins et spiritueux bilan 2014, FEVS: Fédération des exportateurs de vins et spiritueux de France.

OECD, 1999a, Manag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s, Paris: OECD.

_____, 1999b,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OECD Proceeding, Paris: OECD.

Paynaud, E., 1988, Le vin et les jours, Bordas, Paris.

Porter, M. E., 1998a, Clusters and competition: new agendas for companies,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98-080.

_____, 1998b,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Porter, M. E. and Bond, G. C., 1999, The California wine cluster,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799-124, (revised February 2013).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chumpeter, J., 1961/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r. by Redvers Opie, Oxford University Press.

Shin, D. H., Edgington, D. and Hassink, R., 2008,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of the Niagara wine cluster: Canad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0(4): 51-68.

Sylvain, P. and Servant J. C., 2010, Les vins de Bourgogne, 14th ed. Collection Pierre Poupon.

Visser, E. J., 2004, A Chilean wine cluster? Governance and upgrading in the phase of internationalization, United Nations Publication.

BIVB www.vin-bourgogne.fr

FranceAgriMer, www.franceagrimer.fr

UNESCO, whc.unesco.org/fr/list/1425

Developing a Competitive Wine Cluster: a Case of the Burgundy Wine Cluster in France

Hee-Hyun Park* · Ye-Weon Kim** · Geon-Cheol Shin***

Abstract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nowledge-based societies is close collaboration among economic players. As many countries experienced change in industrial environment, they had started establishing industrial clusters since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which paid attention to a sharp increase in Asia-Pacific agrofood industry carried forward a agrofood cluster formation. However, most agrofood clusters play a mere role of food manufacturing businesses without high value added. Thus, the government must actively be involved in the network formation and coordination among cluster agencies.

Identifying spontaneously formed local agricultural industry which consists of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regionally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local corporations is the core factor to maximize competitive advantages for regional growth. However, weak connectiveness among cluster agencies represents a limit of Korean cluster's growth. Therefore,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ignificant meaning of Burgundy wine cluster in order to give implications to Korean agrofood cluster formation.

This study explores France Burgundy wine cluster which not only refuses radical changes but also keeps premium image based on close cooperation among innovative actors. The paper is based on secondary data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urgundy wine cluster pursues common social values: minimizing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mproving public health for wine consumer. The goal is actualized by attracting investment and redistributing research resources. Second, as wine production process should be monitored to ensure food sanitation, the wine cluster will closely cooperate with digital cluster. Third, the local government provides education benefits so as to deal with aged labor-force. Fourth, natur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absolutely differentiates the Burgundy wine from standardized quality wines. Lastly, dynamic interaction among economic actors such as research institut, local

* Ph.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 Ph.D. Student,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 make the Burgundy wine cluster to achieve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Burgundy wine cluster and new world wine cluster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in common. First, the government activates the linkage of actors which was spontaneously formed in the historical agriculture area.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lose connectiveness of local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Furthermore, product uniqueness plays a key role to differentiate from others. Especially, the agrofood should be based on local identity and culural heritage preservation to generate high added value. The paper draws a conclusion by providing implications for Korean agrofood cluster.

〈Key Words〉 Burgundy wine industry, winery, industrial cluster, technical innovation